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청소년리더십 영향요인 분석

최창욱*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청소년리더십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716명을 비례할당표집 하였다. 청소년 리더십 진단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50개의 문항(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각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령, 가정경제수준, 성적,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참여기간,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가정경제수준의 변인들로 구성된 회귀모델은 종속변수인 청소년리더십 능력수준 총 변량의 4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가정경제수준 변인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리더십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인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참여, 청소년리더십, 청소년참여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론

최근 청소년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 및 첨단산업의 생산과 소비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와 함께 청소년이 국가 정보화수준을 앞당길 핵심세대로 부상하고 있다(이민희 외, 2005). 즉, 청소년정책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정책참여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국가의 주요한 성장주체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켜 왔다(김정주 외, 1999).

세계적으로 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며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과 참여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김경준, 2004).

우리나라도 1998년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소년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의 확대와 더불어 과연 청소년참여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청소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더욱이 청소년참여에 대한 연구들도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내용 측면에서도 선언적 결과를 취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용적인 면에서나 학문적인 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의 효과와 유용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청소년리더십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 청소년참여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리더십 진단도구는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의의

참여의 개념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의사결정의 관여와 유권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경제활동의 혜택 측면에, 행정학자들은 의사결정과정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천정웅, 1998), 사회심리학자들은 관여(involverment)나 영향(influence)으로 본다(Chell, 1985).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이 청소년참여를 개념화하였다. Winter(1997)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정의하였으며, Hart(1997)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Council of Europe (1992)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고, 허용되고, 조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 정책참여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참여는 사회적 동물로서 소외를 싫어하여 본능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본래적 가치, 참여를 통해 스스로가 발전하는 자기개발가치, 공리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나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적 가치로 구분된다(김대환, 1997).

이와 같은 참여의 일반적인 가치는 청소년참여에서도 적용된다. Bopp(1994)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과 숙고(reflection)를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참여가 없으면 학습도 발달도 없다’고 하였다. Hart(1997)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 없이 갑자기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

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Winter(1997)는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을 사회구조에 통합(fitting in),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empowerment), 청소년들에게 자질 있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education in democratic citizenship)으로서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천정웅(1998)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이 역사적, 사회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는 과정과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Checkoway(1999)는 청소년들의 참여로 얻어지는 이득은 개인 발달(personal development),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communitary development)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리더십의 발달과 구성요소

1) 청소년리더십의 발달

van Linden과 Fertman(1998)은 청소년기를 리더십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간주하고, 청소년기에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이루어가고, 위험 행동(risky behaviors)을 예방하며,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더십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라 할 수 없으며, 특정 인만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skills)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청소년이 리더십 잠재력(leadership potential)과 능력(abilities)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발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Astroth, 1996; Bennis & Nanus, 1985).

Hughes, Ginnett과 Curphy(1993)는 리더십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어진다

고 주장하면서, 리더십을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활동(activity)-관찰(observation)-반성(reflection) 모델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활동(activity)-관찰(observation)-반성(reflection) 모델은 계속된 경험들 속에서 한 개인이 행한 활동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의 결과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준 영향을 알아보는 관찰의 과정, 현재의 위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리더십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리더십 상황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일 그 자체도 좋은 리더가 되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van Linden과 Fertman(1998)은 청소년의 리더십은 인지(awareness), 상호작용(interaction), 통달(mastery)의 3가지 단계로 발전하며, 각 단계는 리더십에 대한 정보(leadership information), 리더십에 대한 태도(leadership attitudes),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등의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s)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2) 청소년리더십의 구성요소

청소년리더십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Miller(1976)는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관계성(relationships), 학습(learning), 조직관리(management), 자기이해(understanding self), 그룹활동(group process),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청소년리더십의 주요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Miller(1991), Miller와 Bowen(1993)은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contributory)의 3가지 하위영역을 구성요소로 분류하였고, Boyd(1991)는 그룹활동(working with groups), 자아 이해(understanding self),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ng), 리더십(leadership),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5가지 하위영역을 청소년리더십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한편, Wingenbach(1995), Seevers와 Dormody(1995), Morris(1996), 최창욱(2001), 최창욱 외(2005) 등은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 기술(decision-making skills), 인간관계 기술(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학습능

력 기술(learning skills), 조직관리 기술(management skills), 자기이해 기술(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그룹활동 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의 7가지 하위영역을 청소년리더십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200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최창욱(2001), 김정대(2003) 등의 논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리더십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청소년리더십의 하위영역을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등의 5개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피터 드러커, 스티븐 코비 등 다수의 리더십 학자들이 주장한 리더십 특징이나 행동양식과 기존 선행연구들의 문항들을 590개의 문항으로 정리한 후 11명의 전문가 패널과 1차 조사를 통하여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획득한 후 다시 1,592에게 2차 조사한 후 높은 내적신뢰도를 획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리더십 진단도구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였으며, 진단도구 개발을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획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의 분류를 따랐으며, 이 진단도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참여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청소년참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책적인 참여 요소를 고려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주 외(1999)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참여의 유형을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시설단체 중심의 참여, 학교에서 참여, 자생적 참여로 나누고 각각 면접대상자를 사례별로 2~10명씩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정책참여는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효과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지역사회 기여, 자아정체감 형성, 대인관계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부족, 부모반대, 활동 공간 부족, 활동 자원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한석·진종현·이재주(1999)는 자연수련활동이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참여관련변수는 참여횟수, 참여동기, 수련기간(참여기간), 참여정도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성 발달의 지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혁(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여관련변수는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로 설정하였고, 참여기간과 참여빈도가 길거나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행(2002)은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정도와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관련 변수는 참여수준, 참여강도,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유형 등 5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참여강도, 참여빈도, 참여기간 등이 청소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성(2004)은 청소년참여와 청소년 임파워먼트(empowerment)¹⁾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청소년참여가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도구로 보았으며, 참여관련 변수(참여단체, 참여정도, 활동기간, 처음 활동시작 시기, 활동 동기, 활동 장점, 활동 단점, 부모님의 사회활동)와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학년, 학교, 경제상황)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정도가 강할수록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임파워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참여적극성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Gilman(2001)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외의 청소년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과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관심·흥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교과 외 청소년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 외 청소년활동의 횟수와 사회적 관심·흥미와는 상관관계가 적었다.

Bartko와 Eccles(2003)는 청소년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활동과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활동에 참여한 정도가 심리사회적 지표(학업성취, 문제행동, 정신적인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조직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1) 임파워먼트는 사전적 의미로 권한부여, 권력위양 등의 뜻이 있다. 김희성(2004)은 임파워먼트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집단, 조직, 사회적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긍정적인 청소년개발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것은 청소년참여의 효과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조사 도구를 가지고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연구의 여건상 복잡 다양한 조사 도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리더십 도구를 효과측정의 주요도로 사용하고 있다.

Carter와 Spotanski(1989), Miller(1991), Miller와 Bowen(1993), Mckinley, Birkenholz와 Stewar(1993)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리더십생활기술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d(1991), Wingenbach(1995)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여가 리더십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단체활동 참여기간도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단체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청소년들의 리더십생활기술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Boyd, Herring과 Briers(1992)의 연구에서는 활동참여와 더불어 단체활동 참여정도도 리더십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Morris(1996)의 연구에서는 단체활동 참여, 참여기간, 학교활동 참여 등이 리더십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는 단체활동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정도 등이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 단체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열심히 참여한 회원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았다. 특히 참여정도는 다른 변수에 비해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최창욱 외(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 동아리수, 동아리 종류, 동아리 가입기간, 동아리 임원여부, 동아리 참여정도, 동아리활동 만족도, 외부의 동아리활동 지원정도 등의 변수가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청소년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리더십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집단은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참여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정책 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3개로 한정하였다. 이는 이 3개의 참여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대표적인 것들이며, 이 연구자체가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리더십수준을 통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집단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 실시한 청소년특별회의 100명,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625명,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713명 등 총 1,538명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6년 5월 31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 443명,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역시 2006년 5월 31일 현재 전국 210개 시설·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3,145명이다. 세 집단을 합하면 모집단은 총 5,126명이다.

표집방법은 참여기구별 할당 비례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특별회의에 450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150부, 청소년운영위원회 900부를 배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청소년특별회의 210부, 청소년참여위원회 136부, 청소년운영위원회 370부 등 총 716부이다. 조사는 200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질문지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변인을 추출하였다. 이 변인들은 앞서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만을 추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 관련 독립변인은 개인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청소년참여 관련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변인은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성적, 자아존중감 등 4개, 청소년참여 관련 변인은 참여정도, 참여기간, 성취기대수준 등 3개를 설정하였다.

1) 개인변인(인구통계학적 · 사회심리적 특성변인)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①연령, ②사회경제적 배경(하/중하/중/상중/상), ③성적(하/중하/중/상중/상) 등 3개로 설정하였다. 성적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하였고, 연령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변인들은 모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특성변인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SE: Self-Esteem Scales)를 사용하였다(최창욱, 2001).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가 0.7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0.90으로 역시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참여 관련 변인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참여정도, 참여기간, 참여를 통한 성취기대수준 등 3가지 변인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변인에 따른 조사도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책참여 기구 참여정도: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구 참여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부터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② 정책참여 기구 참여기간: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구 참여기간은 개방형질문으로 측정하였는데 개월 단위로 질문하였다.
- ③ 정책참여를 통한 성취기대수준: 청소년들의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참여를 통한 성취기대수준은 최창욱(2001)이 사용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를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부터 '아주 기대가 컸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3) 청소년리더십 진단도구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리더십 진단도구는 목표달성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능력, 인간관계능력, 목적의식 등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하위영역별로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할 때의 각 하위영역과 전체리더십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목표달성능력 0.81, 재창조능력 0.80, 통솔력 0.88, 인간관계능력 0.82, 목적의식 0.84, 전체 0.94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달성능력 0.87, 재창조능력 0.91, 통솔력 0.89, 인간관계능력 0.88, 목적의식 0.90, 전체리더십 0.96으로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IV.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716명)의 일반적 특징은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39.2%, 여자청소년이 60.8%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6~18세의 청소년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6.8%로 가장 많았으며, 13~15세(26.2%), 19~24세(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경우 보통의 수준으로 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생이 56.1%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학생(25.5%), 대학생(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으로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37.5%, 중위권 27.3%, 상위권,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 도	백분율
변 수 명	구 분		
성별	남 자	279	39.2
	여 자	432	60.8
	합 계	711	100.0
연령	10~12세	26	3.7
	13~15세	186	26.2
	16~18세	404	56.8
	19~24세	95	13.4
	합 계	711	100.0
가정형편	아주 못 산다	5	.7
	못 산다	82	11.5
	보 통	523	73.6
	잘 산다	92	12.9
	아주 잘 산다	9	1.3
	합 계	711	100.0
학교성적	하위권	31	4.4
	중·하위권	85	12.0
	중위권	194	27.3
	중·상위권	266	37.5
	상위권	134	18.9
	합 계	710	100.0

2. 청소년리더십 수준의 분포

청소년리더십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를 통하여 파악된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 수준의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리더십능력 수준의 점수분포는 최소 50.00점에서 최대 250.00점이다. 이 연구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 최소값이 87.00, 최대값이 245.00점으로 나타났다. 분포의 집중경향성(central tendency)을 나타내는 지수는 평균이 178.07로 이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치가 178.50으로 평균치와 거의 유사하게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분포의 분산도(dispersion)를 나타내는 지수는 표준편차 28.54, 표준오차 1.07, 변량 814.54로 나타났다. 한편 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skewness)는

-1.34, 분포곡선의 모양을 표현하는 첨도(kurtosis)는 7.35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리더십 수준의 분포

범 위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분포의 특성	
140점 이하	48	6.7	6.7	평균(178.07)	표준오차(1.07)
141~160점	126	17.6	24.3	중앙치(178.50)	최빈치(168.00)
161~180점	204	28.5	52.8	표준편차(28.54)	변량(814.54)
181~200점	193	27.0	79.7	왜도(-1.34)	첨도(7.35)
201~220점	111	15.5	95.3	최소치(87.00)	최대치(245.00)
221점 이상	34	4.7	100.0		

3.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리더십능력간의 상관관계

개인관련 변인 및 청소년 참여관련 변인들과 리더십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관련 변인들 중 연령($\gamma=.146$), 경제적 배경(γ

<표 3>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리더십능력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령												
2. 경제적배경	-.124*											
3. 성적	.062	.234*										
4. 자아존중감	.097*	.086*	.291*									
5. 참여정도	.055	.042	.133*	.135*								
6. 참여기간	.213*	-.032	.088*	.161*	.183*							
7. 성취기대수준	.061	-.025	.106*	.140*	.229*	.103*						
8. 목표달성	.118*	.107*	.330*	.553*	.249*	.234*	.217*					
9. 재창조	.083*	.131*	.265*	.513*	.296*	.210*	.169*	.638*				
10. 통솔력	.159*	.039	.289*	.549*	.248*	.216*	.225*	.694*	.561*			
11. 인간관계	.110*	.148*	.260*	.500*	.184*	.119*	.173*	.621*	.581*	.627*		
12. 목적의식	.132*	.149*	.285*	.551*	.200*	.184*	.185*	.648*	.500*	.675*	.531*	
13. 전체리더십	.146*	.142*	.351*	.644*	.286*	.233*	.237*	.866*	.800*	.856*	.805*	.814*

* p<.01

=.142), 성적($\gamma=.351$), 자아존중감($\gamma=.644$)이, 참여관련 변인들 중 참여정도($\gamma=.286$), 참여기간($\gamma=.233$), 성취기대수준($\gamma=.237$)이 리더십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1$).

또한 리더십능력 하위영역과 개인관련 변인 및 참여관련변인간의 상관에서는 재창조와 경제적배경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각 변인들은 목표달성, 재창조, 통솔력, 인간관계, 목적의식 등의 리더십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인변인 중에서 나이가 많고, 가정경제수준, 성적 및 자아존중감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며, 참여관련변인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참여기간이 많을수록, 또한 참여시 참여를 통한 긍정적 효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4.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 변인이 청소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군이 리더십생활기술의 총 변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인구학적 변인 연령, 성적, 경제적 배경; 사회심리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청소년참여 관련변인 참여정도, 참여기간, 성취기대수준)만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군에 의해 리더십능력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잔차의 극소화 원리를 적용하여 그려진 회귀선은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1%내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총 6개의 설명변수로 구성된 유의미한 이 회귀선은 결정계수(Adj R^2)가 .438로 분석되어, 투입된 6개의 변인군에 의해 데이터가 종속변수인 리더십능력 수준 총 변량의 4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입된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의 표준화계수($\beta=.489$)와 참여정도의 표준화계수($\beta=.184$), 성적의 표준화계수($\beta=.146$)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투입된 독립변수 중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변수가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 수준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투입된 6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변인군이 청소년의 리더십능

력 수준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45.5%로 나타나 청소년의 리더십능력 수준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변인들임을 증거한다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고,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에 열성적이며, 성적이 좋은 청소년의 리더십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특히 최창욱(2001), 최창욱 외(200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 인	β (표준화)	R^2 (adj- R^2)	F
자아존중감	.489***	.443(.438)	84.995***
참여정도	.184***		
성적	.146***		
성취기대수준	.106***		
연령	.080**		
경제적배경	.082**		

** $p < .01$, *** $p < .001$

또한 개인변인 중 연령, 성적, 경제적배경과 참여관련변인 중 참여정도, 참여기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능력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목표달성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참여기간 변인들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목표달성수준의 32.5%를 설명해 주었다.

재창조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경제적배경, 성적, 참여기간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재창조수준의 28.5%를 설명해 주었다.

통솔력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통솔력수준의 2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가정형편, 성취기대수준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전체 인간관계

수준의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성적,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연령, 경제적배경 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전체 목적의식수준을 2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인변인/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능력 하위영역	변 인	β (표준화)	R(adj-R)	F
목표달성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참여기간	.408*** .145*** .171*** .092** .081*	.330(.325)	63.279***
재창조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경제적배경 성적 참여기간	.400*** .196*** .099** .083* .067*	.290(.285)	52.456***
통솔력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378*** .157*** .130*** .116** .090**	.292(.286)	52.893***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경제적배경 성취기대수준	.347*** .123** .105** .088* .083*	.223(.216)	36.745***
목적의식	자아존중감 성적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연령 경제적배경	.424*** .113** .108** .089** .082* .083*	.306(.299)	47.045***

* $p < .05$, ** $p < .0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들의 청소년리더십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 청소년참여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리더십 진단도구는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목적의식 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변인과 리더십 능력 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변인 및 청소년 참여관련 변인들과 리더십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관련 변인들 중 연령($\gamma=.146$), 경제적 배경($\gamma=.142$), 성적($\gamma=.351$), 자아존중감($\gamma=.644$)이, 참여관련 변인들 중 참여정도($\gamma=.286$), 참여기간($\gamma=.233$), 성취기대수준($\gamma=.237$)이 리더십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1$). 이는 개인변인 중에서 연령이 높고, 가정경제수준, 성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참여관련변인 중에서는 열성적 참여자, 참여기간이 높을수록,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리더십 능력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관계분석을 통해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인 연령, 경제적 배경, 성적,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참여기대, 성취기대수준 등을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경제적 배경의 변인들로 구성된 회귀모델은 종속변수인 청소년리더십 능력수준 총 변량의 4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경제적 배경 변인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리더십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인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리더십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참여가 개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참여 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성취기대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참여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이나 참여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활동참여의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진로선택,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연동 등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한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 의무화, 청소년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청소년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부가하여 향후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하여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모델을 모든 유형의 청소년참여 즉, 정치참여, 사회참여, 경제활동참여, 종교활동참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참여활동의 효과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참여유형별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도구로 청소년리더십능력 수준을 채택하였다. 이는 청소년참여 효과 측정에 대한 단일한 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현재까지 참고할 수 있는 도구로 청소년리더십능력 진단도구가 가장 적절한 도구라 판단되어 적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적절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참여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본행(2002).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정도와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대환(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정주 외(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희성(2004). 청소년참여를 통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한석·진종현·이재주(1999). 자연권수련활동이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웅진대학교 논문집, 제17집, pp.159~177.
- 이한혁(201).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응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4권 제2호, pp.567~579.
- 천정웅(1998). IMF시대 청소년참여의 방향과 과제, 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창욱·김정주·송병국(2005).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2권 제2호, pp.57~76.
- 한국교육개발원(2003).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stroth, K. A.(1996). Leadership in Nonformal Youth Groups: Does Style Affect Youth Outcome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4(6).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6december/rb2.html>.
- Bartko, W. T. and Eccles, J. S.(2003). Adolescent Participation in Structured and Unstructured Activities: A Person-Oriented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 Adolescence*, Vol. 32 No. 4, pp.233~241.
- Bennes, W., & Nanus, B.(1980). *Leaders: The Strategies for Taking Charge*. New York: Harper Collins.
- Bopp, M.(1994), The illusive essential: Evaluating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and community, *Convergence*, Vol. 27 No. 1,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 Boyd, B. L.(1991). *Analysis of 4-H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 development in Texas 4-H club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Texas A&M University.
- Boyd, B. L., Herring, D. R. & Briers, G. E.(1992). Developing Life Skills in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Vol. 30 No. 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2winter/a4.html>.
- Carter, R. I., & Spotanski, D. R.(1989). Perceptions of leader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in Iowa.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30 No. 4. pp.31~34, 41.
- Checkoway, B.(1999). *Adult ad allies*. A Kellogg Foundation Publication. Online: <http://www.wkcf.org>.
- Chell Elizabeth(1985).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ian Press.
- Council of Europe(1993). *European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Municipal and Regional Life*. Online: <http://www.coe.fr>.
- Gilman, R.(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rest, and Frequenc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6, pp.749~767.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Hughes R. L., Ginnett, R. C., & Curphy, G. J.(1993). *Leadership: Enhancing the Lessons of Experience*. Richard, D. Irwin, INC.
-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1999). *Youth Participation*. Online:

<http://www.iyfnet.org/programs/yoythpart.html>.

- McKinley, B. G., Birkenholz, R. J., & Stewart, B. R.(1993).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leadership skills of agriculture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34 No. 3, pp.76~83.
- Miller, J. P.(1991). *Four-H and non-4-H participants' development of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octoral dissertation(Ph. 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iller, R. A.(1976). *Leader/agent's guide: Leadership and life skills*. Stillwater: Oklahoma State University.
- Miller, J. P. & Bowen, B. E.(1993).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31 No. 1, pp.68~76.
- Morris, J. C.(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sity Press.
- Seevers, B. S., & Dormody, T. J.(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vol. 33 No. 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 van Linden, J. A., & Fertman, C. I.(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 Wingenbach, G. J.(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Winter, M.(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Youth Leadership of Participants i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Choi, Chang-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s of youth participation on the youth leadership. The dependent variable was consisted of 50 items of youth leadership scale. The 7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e variable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1)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economy level, and average school grades, 2) socio-psychological variable such as self-esteem, 3) youth particip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level of participation, years in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nd achievement expectanc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719 youths participating in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s including Presidential Youth Congress, Youth Administration Committees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7 independent variables(age, economy level, average school grades, self-esteem, level of participation, years in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nd achievement expectancy) influenced positively the youth leadership ability. Second,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6 independent variables(age, economy level, average school grades, self-esteem, level of participation, and achievement expectancy) accounted for 45.5% of the variance of youth leadership.

Key Words : youth participation, youth leadership,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10월 26일

* Research Fellow 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